

기본심화강의

강의 계획서

(2016년 김동진 민법)

▶ hanlimgosi.co.kr / law-no1.com

강사 : 김동진

교재 : 민법강의 22판(김준호 교수님, 법문사) · 민법의 틀(김동진, 월비스)

자료 : 밑줄자료 + 판례사례연습자료 + 필기노트

강의기간 : 3월 10일 ~ 4월 30일(총 45회 · 영상강의) + 1회(실강 · 일정은 추후 공지)

[강의목표]

저도 기본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계획서가 마치 선거를 앞 둔 정치인들의 공약(空約)처럼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행할 사항들만 소개하겠습니다.

1 기본강의는 건물 신축 공사와 비슷합니다. 지반을 잘 다지고 그 위에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이라는 총 3층의 야무진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날림 공사가 되어버리면, 나머지 부분까지도 머지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강사가 강의 준비를 부실하게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만 증언부언하면서 계획 없이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필히 채권법 이후부터는 날림 강의가 시작되고, 특히 기본강의에서의 날림은 수험생의 일정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게 합니다.

저는 강의 준비만큼은 그 누구보다 철저히 한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2016년 기본강의 역시 철저히 준비하여 민법총칙 처음부터 채권법 마지막까지 어느 한 부분도 날림 없이 충실하게 강의하겠습니다.

2 부교재인 「민법의 틀」(총 88면)을 활용하여 민법강의 22판 1권이든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례 문제라면 그 형식이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묻는 것은 동일하며, 답안 표기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서 1권으로 「요건」을 충실히 이해 및 암기하고 각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사실관계와 함께 꾸준히 공부하면서 추후 사례연습문제집 1권만 추가하여 실전처럼 답안 작성을 연습하면 주관식 시험 대비도 충분합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매서운 적(敵)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수 著 기본서로는 주관식 사례 대비가 힘들다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불필요하게 2천 페이지에 육박하는 수험서를 따로 보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1) 법원의 판단, 즉 판결은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민법을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민법을 재판규범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민법 조문을 통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요건사실)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본강의 과정을 통해서 사법연수원 교재에 수록된 요건사실뿐만 아니라 사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사실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가장 훌륭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사례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입니다. PPT 및 판례사례자료 등을 통하여 중요판례의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주어진 사실관계를 위 (1)의 과정에서 익힌 요건사실에 대입을 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 연습을 매 강의 시간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신다면, 사례 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예습 등과 관련된 몇 가지의 조언]

1 저는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강사료를 받는 입장에서 수업시간 자체를 매우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밑줄을 하라는 말을 하고 수강생 분들께서 밑줄 긋는 시간 동안 설명을 멈추고 멍하니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서 중후반에 가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판례들이 매우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그 많은 중요판례들을 전부 자세히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밑줄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습시간에 밑줄자료를 보면서 밑줄을 긋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는 점을 저도 잘 압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년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고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분의 수업시간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밑줄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께서는 예습시간에 기본서에 밑줄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절약된 시간은 보다 더 많은 판례 설명에 활용하겠습니다.

밑줄 자료에 나와 있는 「샤프(일반 밑줄)/파란색(판례)」이라는 표시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오니,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밑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해놓고 강의를 수강하려 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다음 수업 진도 범위까지만 밑줄을 하시면서 책을 일독하는 방법으로 예습하시길 바랍니다.

2 강의를 듣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를 듣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하루에 몇 개를 수강했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강의를 수강하였다면, 반드시 당일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복습을 하면서 무리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초심자 분들은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각종 문제집까지 병행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시기에 해야 할 공부가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강의 과정에서는 문제 풀이보다는 요건사실을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에 노력하시고 기본서를 정독하는 것이 현명한 복습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여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3 수업시간에는 강의 듣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 필기노트가 제공됩니다. 필기노트는 기본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해설서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분히 3회독만 하신다면, 기본서 판례 문구를 읽으면 저절로 필기노트에 담긴 사실관계나 설명이 생각날 것입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의 설명 중 필요하다 싶은 내용은 필기노트 여백에 조금씩 가필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마치며...]

강의계획서에 담지 못한 여러 이야기들은 기본강의 1회 1강 O.T 시간에 말씀드릴 것이며, 강의와 관련된 질문은 www.law-no1.com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2015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의 기본강의를 수강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많은 강의보다는 꼭 해야 하는 강의 위주로 묵묵히 저의 본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회: 3월 10일(목)	OT ~ 32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2회: 3월 11일(금)	32면, 2008다79302 ~ 67면, 출생
3회: 3월 12일(토)	68면, 태아 ~ 99면, 특정후견인
4회: 3월 14일(월)	100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131면 법인 틀잡기
5회: 3월 15일(화)	131면, 법인의 설립 ~ 160면, 정관에 의한 대표권제한
6회: 3월 16일(수)	159면, 이익상반의 경우 ~ 208면, 종물의 요건
7회: 3월 17일(목)	208면, 종물의 효과 ~ 253면, 강행규정위반의 효과
8회: 3월 18일(금)	254면, 제103조 ~ 283면, 94다12074
9회: 3월 19일(토)	285면, 제108조 제2항 유추의 문제 ~ 316면 타인명의로 계약한 경우
10회: 3월 21일(월)	313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351면, bb) 대리행위의 방식
11회: 3월 22일(화)	351면, 어음위조의 경우 ~ 379면, 무효의 효과
12회: 3월 23일(수)	379면, 무효행위의 전환 ~ 407면 조건 마무리
13회: 3월 24일(목)	408면, 기한 ~ 437면, 응소행위
14회: 3월 25일(금)	437면, 응소행위 ~ 489면, 물권의 절대성